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 ①

치킨집 현황 및 시장여건 분석

2019. 6.3

연구위원 김태환

Ⅰ. 치킨 프랜차이즈 현황

Ⅱ. 치킨집 창업 및 폐업 실태

Ⅲ. 주요지역 분석

Ⅳ. 치킨집 영업 여건 진단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www.kbfg.com/kbresearch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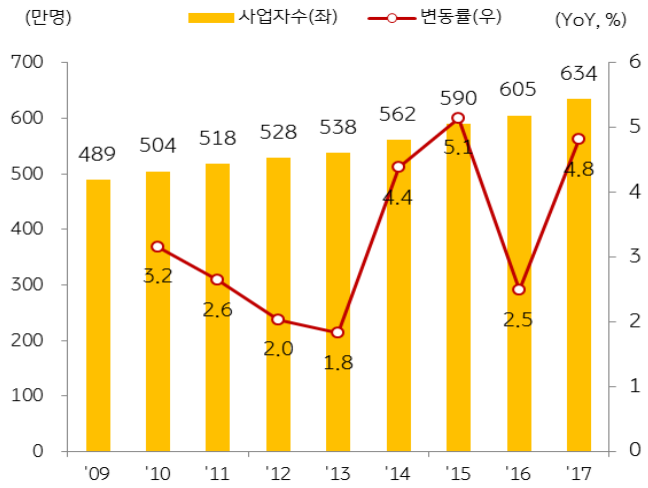
치킨 프랜차이즈 현황	■ 경기여건 악화에도 자영업 창업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수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50~60대와 30대 미만 창업이 증가 ■ 사업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창업 중에서도 치킨집은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의 21.1%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 ■ 치킨 프랜차이즈는 창업 및 운영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매출액은 다른 외식 업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2018년 409개의 브랜드가 시장에서 경쟁 중
치킨집 창업 및 폐업 현황	■ 2019년 2월 현재 전국에서 8.7만개의 치킨집이 영업 중이며 경기도에 가장 많은 1.9만개의 치킨집이 있고 인구천명당 치킨집 수는 전남이 가장 많은 2.43개 ■ 치킨집 창업은 2014년 9.7천개에서 2018년 6.2천개로 감소하였지만 폐업은 2015년 이후 매년 8천개 이상 발생해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상황이 지속 ■ 특히, 최근 비용부담이 증가하면서 창업 매장의 평균 면적은 줄어들고 규모가 큰 매장의 폐업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주요 지역 분석	■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치킨집이 있는 수원에서는 최근 3년간 창업보다 폐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밀집도가 높은 인계동의 경우 매장수가 늘어나 경쟁이 심화되고 매출액이 감소하며 영업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 ■ 치킨집 폐업이 가장 많았던 부천에서는 1,683개 매장이 영업 중이며 최근 5년간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상권 분석결과에서도 매출액이 감소 ■ 비수도권에서 가장 치킨집이 많은 창원에서는 2015년 이후 치킨집 폐업이 증가하였으며 폐업이 많았던 내서읍 상권은 최근 매장수와 매출액 모두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
치킨집 영업 여건 진단	■ 닭고기 소비량이 늘고 전체 매출 규모가 증가하는 등 치킨 시장의 수요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쟁 심화와 비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하락 등 악화된 영업 여건은 당분간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I. 치킨 프랜차이즈 현황

■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수는 자영업 경기 여건 악화로 폐업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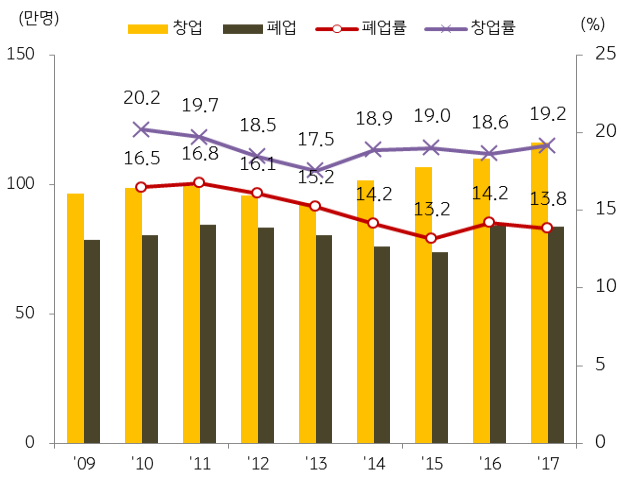
-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총 개인사업자수[1]는 2016년 대비 4.8% 증가한 634만명 수준이며 2014년 이후 연평균 24만명이 증가
- 개인사업자 증가는 폐업자수에 비해 신규 창업자가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2013년 93만명 수준이던 창업자수는 2017년 116만명까지 증가

[그림 1] 개인사업자수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그림 2] 개인사업자 창업 및 폐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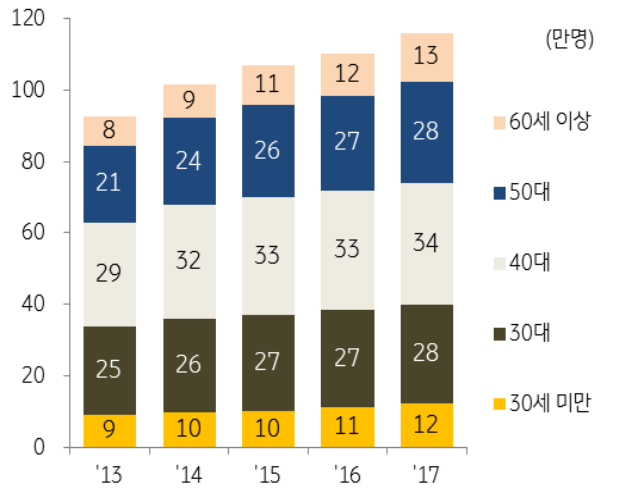
주:창업(폐업)률=당해창업(폐업)자수/전년도 총사업자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베이비부머 은퇴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50~60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창업에 나서면서 30세 미만 창업도 증가**

- 2013년 21만명 수준이던 50대 창업자수는 2017년 28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60대 이상 창업 역시 같은 기간 8만명에서 13만명으로 증가
- 한편, 30세 미만 창업자수는 2013년 9만명에서 2017년 12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창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에서 10.6% 수준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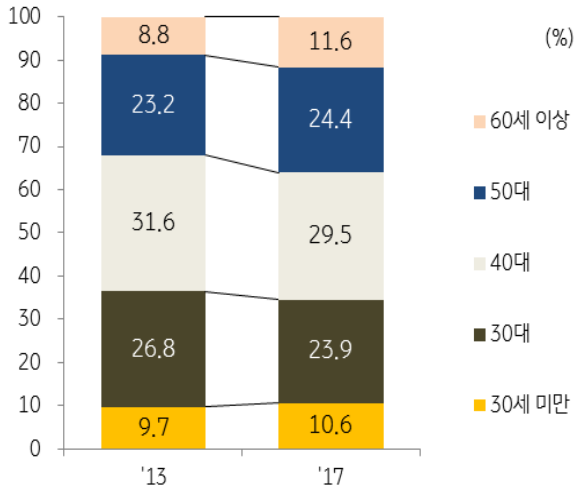
[1] 자영업자는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

[그림 3] 연령별 신규 개인사업자수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그림 4] 신규 개인사업자 연령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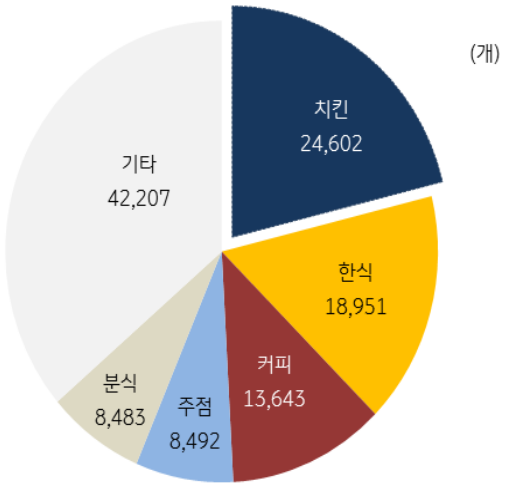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 사업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치킨집은 외식 프랜차이즈 중 가장 많은 가맹점을 가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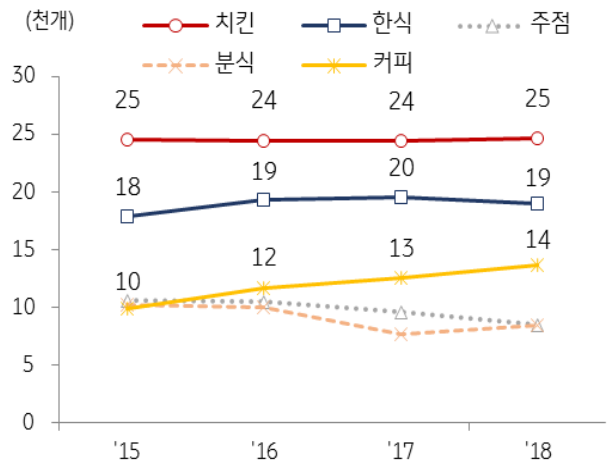
- 2018년 현재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점 11.6만개 중 치킨집이 2.5만개(21.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식(1.9만개), 커피(1.4만개), 주점(0.8만개) 순으로 가맹점수가 많음
-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상위 5개 업종 중 한식, 주점, 분식 가맹점 수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5만개 수준을 유지

[그림 5]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별 가맹점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정보공개서 등록자료

[그림 6]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별 가맹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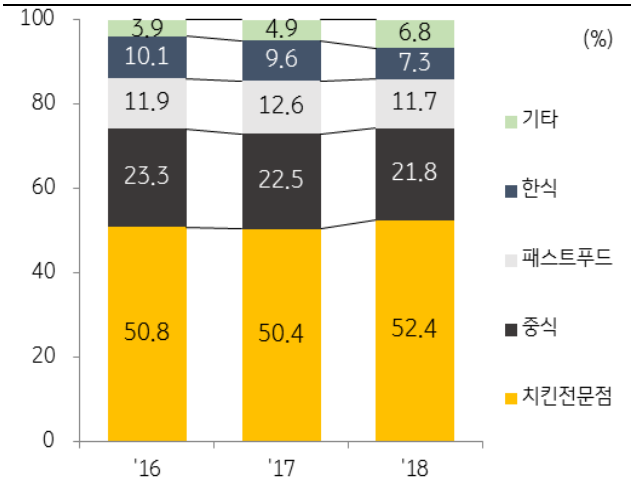
주: 정보공개서 등록연도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치킨 프랜차이즈는 배달 매출 비중이 높아 입지 및 매장규모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창업비용도 낮아 주요 창업 아이템으로 관심이 높은 상황**

- '2018년 국내 외식트랜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배달음식으로 치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개월간 치킨 배달을 이용한 비중은 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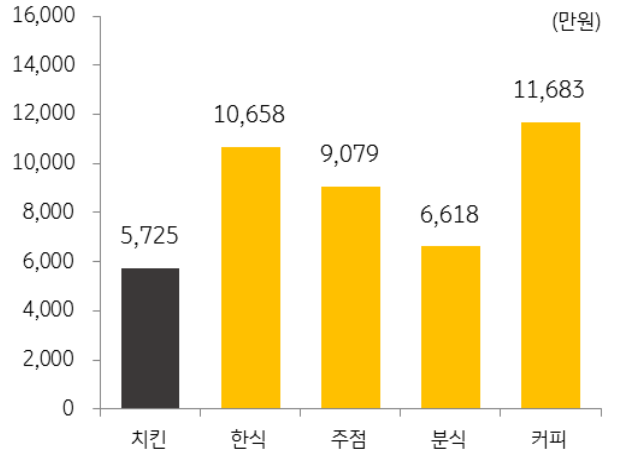
- 치킨 프랜차이즈의 인테리어 비용 기준 면적은 평균 53㎡로 한식(129㎡), 주점(109㎡), 분식(82㎡), 커피(71㎡)보다 작고 가맹비를 포함한 창업비용[2]도 5,725만원 수준으로 주요 외식 업종에 비해 낮은 편

[그림 7] 배달외식 주요 이용 업종 비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외식트랜드 조사

[그림 8] 프랜차이즈 업종별 평균 창업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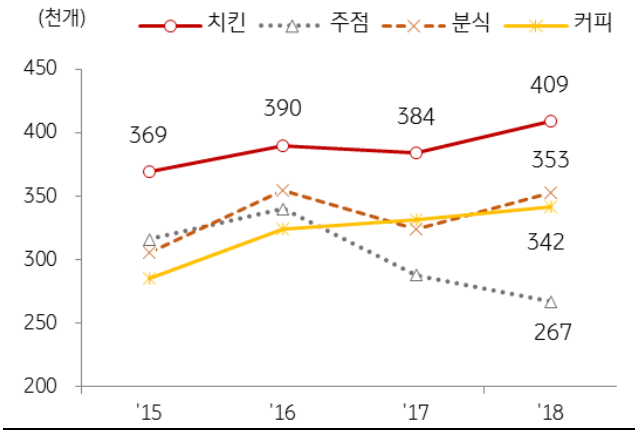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정보공개서 등록자료

■ **창업과 함께 신규 브랜드의 시장 진출도 증가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는 한식을 제외한 주요 외식업 중 가장 많은 브랜드를 보유한 업종**

- 2018년 현재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총 409개로 분식(353개), 커피(342개), 주점(267개)에 비해 많으며 2017년 소폭 감소하였던 브랜드수는 2018년 한해 동안 25개가 증가

[그림 9]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별 브랜드수 추이



주: 정보공개서 등록연도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창업비용에는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장 임대료, 인건비 등은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가맹점수가 가장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BBQ'로 2018년 현재 전국에 1,659개의 매장이 있으며 2015년 이후 4년 연속 가맹점수 1위를 유지

- 최근 가맹점수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브랜드는 'BHC'로 2015년 873개 였던 가맹점이 2018년 1,456개로 늘어나면서 순위도 7위에서 2위로 상승하였으며 '페리카나', '네네치킨', '교촌치킨'은 가맹점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브랜드

[표 1] 연도별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상위 20위 브랜드

순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브랜드명	가맹점수	브랜드명	가맹점수	브랜드명	가맹점수	브랜드명	가맹점수
1	BBQ	1,684	BBQ	1,381	BBQ	1,490	BBQ	1,659
2	페리카나	1,235	페리카나	1,225	BHC	1,395	BHC	1,456
3	네네치킨	1,128	네네치킨	1,201	페리카나	1,202	페리카나	1,176
4	교촌치킨	965	BHC	1,199	네네치킨	1,193	네네치킨	1,167
5	처갓집양념치킨	888	교촌치킨	1,006	교촌치킨	1,017	교촌치킨	1,037
6	굽네치킨	877	호식이두마리치킨	913	처갓집양념치킨	961	굽네치킨	1,006
7	BHC	873	처갓집양념치킨	897	굽네치킨	949	처갓집양념치킨	957
8	또래오래	808	굽네치킨	888	호식이두마리치킨	935	호식이두마리치킨	884
9	호식이두마리치킨	802	또래오래	811	또래오래	790	멕시카나	691
10	멕시카나	722	멕시카나	713	멕시카나	688	또래오래	674
11	훌랄라참숯바베큐	523	훌랄라참숯바베큐	526	또봉이통닭	485	또봉이통닭	534
12	부어치킨	477	또봉이통닭	480	훌랄라참숯바베큐	477	지코바양념치킨	446
13	맥시칸치킨	451	맥시칸치킨	435	맥시칸치킨	415	훌랄라참숯바베큐	405
14	지코바양념치킨	363	부어치킨	414	지코바양념치킨	412	맥시칸치킨	382
15	치킨마루	347	지코바양념치킨	370	썬더치킨	354	썬더치킨	346
16	또봉이통닭	338	치킨마루	361	치킨마루	352	치킨마루	317
17	돈치킨	335	썬더치킨	355	부어치킨	335	부어치킨	310
18	썬더치킨	319	치킨매니아	303	땅땅치킨	297	땅땅치킨	301
19	치킨매니아	318	티바두마리치킨	283	DD치킨	286	티바두마리치킨	282
20	땅땅치킨	307	땅땅치킨	278	티바두마리치킨	285	신통치킨	268

주: 정보공개서 등록연도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전국 가맹점수가 많은 브랜드가 지역별 매장수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였지만 일부지역에서는 특정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 'BBQ'는 서울, 세종, 경기, 충북, 전남, 경북, 제주 등 7개 지역에서 가맹점수가 가장 많은 브랜드로 나타났으며 'BHC'와 '페리카나'는 각 3개 지역에서 매장수 1위를 차지
  - 1위 브랜드 가맹점수에서 2위 브랜드 가맹점수를 나눈 수위도는 제주가 1.50, 전남 1.46, 충남 1.42, 세종과 대전 1.36 순으로 해당지역에서 수위 브랜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 한편, 대구에서는 지역브랜드로 성장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매장수가 가장 많았으며 울산과 경남은 '처갓집양념치킨'이, 부산에서는 전국 가맹점수 순위(15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썬더치킨'의 매장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

[표 2] 지역별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상위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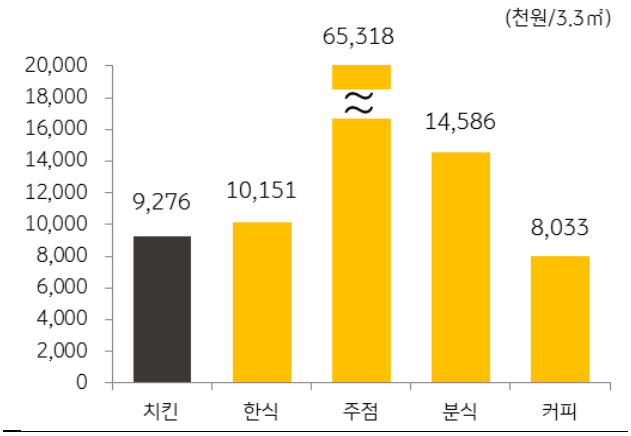
지역	가맹점수 순위			가맹점수 수위도
	1위(A)	2위(B)	3위	(A/B)
서울	BBQ(268개)	BHC(239개)	네네치킨(197개)	1.12
부산	썬더치킨(109개)	교촌치킨(88개), 처갓집양념치킨(88개)		1.24
대구	호식이두마리치킨(84개)	땅땅치킨(83개)	BBQ(74개)	1.01
인천	BHC(75개)	BBQ(73개)	페리카나(67개)	1.03
광주	BHC(40개)	BBQ(36개)	교촌치킨(35개)	1.11
대전	페리카나(57개)	지코바(42개)	BHC(41개)	1.36
울산	처갓집양념치킨(38개), 지코바(38개)		BHC(37개)	1.00
세종	BBQ(15개)	BHC(11개)	페리카나(7개)	1.36
경기	BBQ(428개)	BHC(359개)	페리카나(337개)	1.19
강원	페리카나(101개)	BBQ(88개)	BHC(65개)	1.15
충북	BBQ(63개)	네네치킨(51개)	페리카나(48개)	1.24
충남	페리카나(101개)	BBQ(71개)	BHC(70개)	1.42
전북	BHC(60개)	BBQ(48개)	네네치킨(40개)	1.25
전남	BBQ(82개)	BHC(56개)	네네치킨(46개)	1.46
경북	BBQ(110개)	멕시카나(102개)	호식이두마리치킨(100개)	1.08
경남	처갓집양념치킨(113개)	BBQ(108개)	BHC(100개)	1.05
제주	BBQ(36개)	BHC(24개)	페리카나(20개)	1.5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정보공개서 등록자료

■ 치킨 프랜차이즈의 단위면적당 매출액은 다른 외식 업종에 비해 낮은 수준

- 치킨 프랜차이즈의 단위면적당 매출액은 928만원 수준으로 주점, 분식, 한식 등의 업종에 비해서는 낮고 커피 프랜차이즈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브랜드 중 단위면적당 매출액은 '교촌치킨'이 약 3천5백만원으로 가장 높고 '티바두마리치킨', 'BBQ', '굽네치킨', '60계' 순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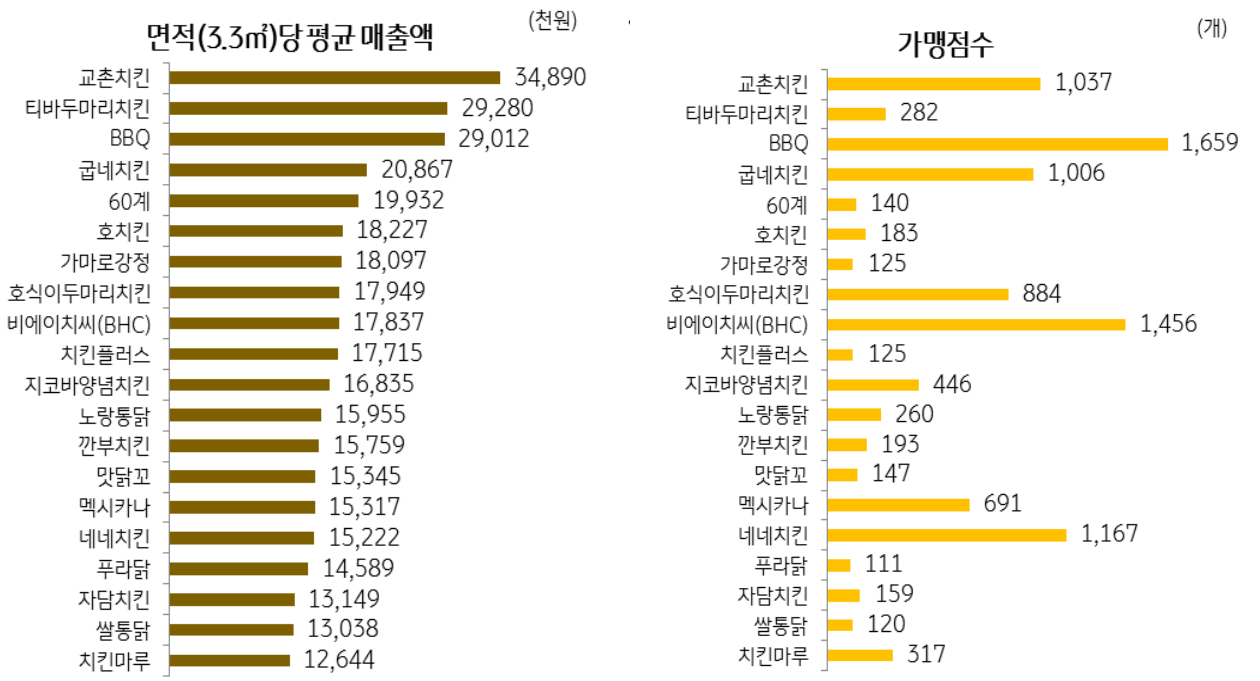
[그림 10] 프랜차이즈 업종별 단위면적당 매출액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정보공개서 등록자료

- 가맹점수와 단위면적당 매출액 모두 상위권에 속하는 브랜드는 '교촌치킨', 'BBQ', '굽네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BHC' 등
- 한편, '티바두마리치킨', '60계', '호치킨', '가마로강정' 등은 가맹점수는 적지만 단위면적당 매출액은 상위권에 속하는 브랜드

[그림 11] 단위면적당 매출액 상위 브랜드 매출액과 가맹점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정보공개서 등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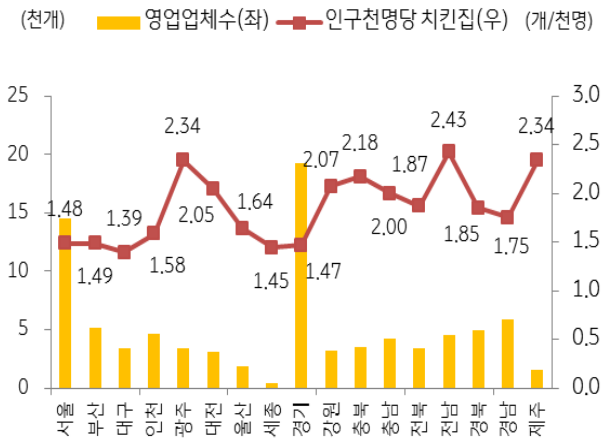
II. 치킨집 창업 및 폐업 실태

■ 2019년 2월 현재 전국적으로 약 8.7만개의 치킨집[3]이 영업 중에 있으며 치킨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인구천명당 치킨집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

- 치킨집수는 경기도가 19,253개로 가장 많고 서울 14,509개, 경남 5,904개, 부산 5,114개 순이며 인구천명당 치킨집의 수는 전남 2.43개, 광주와 제주 2.34개, 충북 2.18개 순으로 비수도권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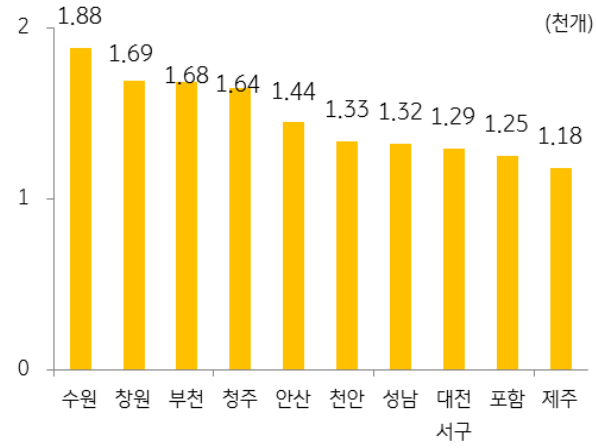
- 시군구별로는 수원에서 가장 많은 1,879개의 치킨집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치킨집이 많은 곳은 창원(1,688개), 부천(1,683개), 청주(1,644개) 순

[그림 12] 지역별 치킨집 현황



자료: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13] 지자체별 치킨집수 상위 10개 지역



자료: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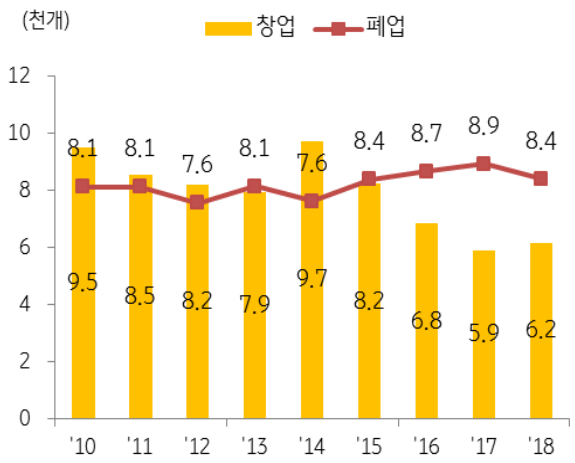
■ 치킨집 창업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폐업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2015년 이후로는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상황이 지속

- 2018년 치킨집 창업은 6.2천개로 2014년 9.7천개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폐업은 2015년 이후 매년 8천개 이상이 꾸준히 발생

- 시군구별로는 최근 5년간(2014~2018) 치킨집 창업이 많았던 지역은 수원(784개), 청주(737개), 부천(698개) 순이며 폐업이 많았던 지역은 부천(988개), 수원(898개), 대전서구(873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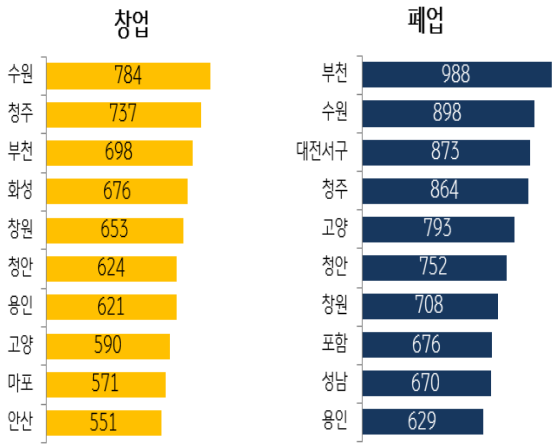
[3]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개방서비스(www.localdata.kr) 제공 2019년 2월 기준 음식업 인허가 자료 중 업태가 '통닭(치킨)', '호프/통닭'으로 분류된 자료를 분석, 이는 주된 상품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통계청 서비스업조사의 '치킨전문점'과는 차이가 있음

[그림 14] 전국 치킨집 창업 및 폐업 추이



자료: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그림 15] 지자체별 치킨집 창업/폐업 상위 10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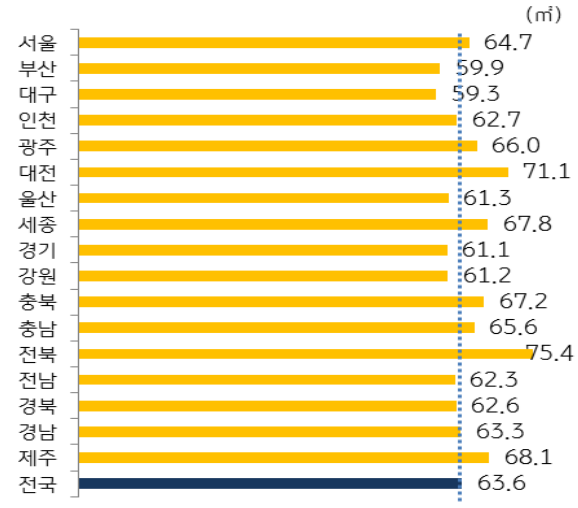


자료: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 2019년 2월 현재 영업 중인 치킨집의 평균 매장규모는 63.6㎡이며 창업매장 규모는 감소하고 규모가 큰 매장의 폐업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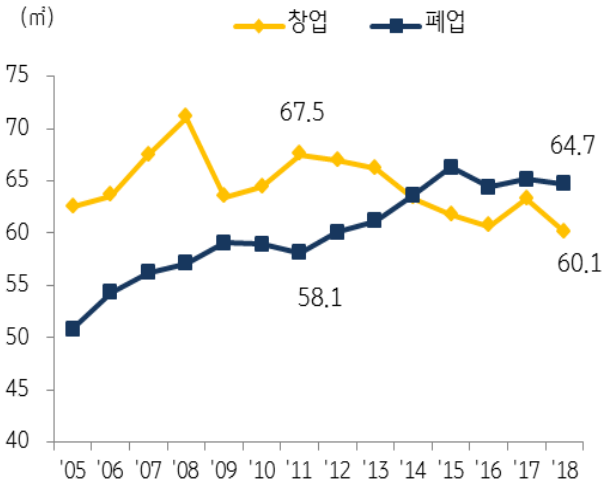
- 치킨집 매장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전북(75.4㎡)이며 대전, 제주, 세종 순으로 매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59.3㎡)와 부산(59.9㎡)은 매장 규모가 작은 지역
- 치킨집 창업 매장의 평균 면적은 2011년 67.5㎡에서 2018년 60.1㎡로 감소하였으나 폐업 매장의 평균 면적은 같은 기간 58.1㎡에서 64.7㎡로 증가

[그림 16] 지역별 치킨집 평균 매장규모



자료: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그림 17] 치킨집 창업/폐업 평균 매장규모



자료: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III. 주요 지역 분석

1. 치킨집수가 가장 많은 수원

■ 수원은 지자체 중 치킨집수가 가장 많고 창·폐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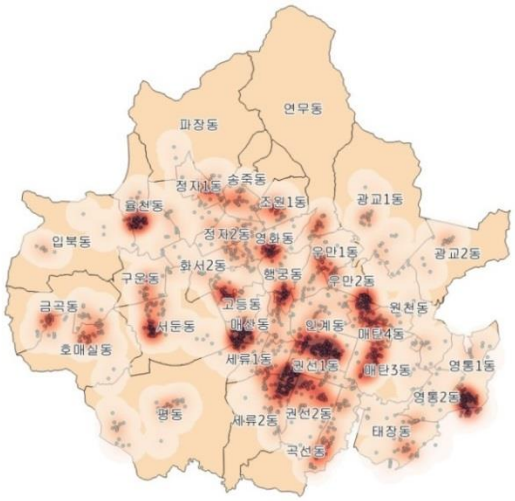
- 수원시 행정구별로 치킨집수는 권선구가 573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치킨집이 많은 지역은 팔달구(547개), 영통구(403개), 장안구(356개) 순
- 팔달구는 수원에서도 치킨집의 평균면적(83.4㎡)이 가장 넓고 인구천명당 매장수(3.04개)도 가장 많은 지역
- 동별 치킨집수는 팔달구에 속해있는 인계동이 200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권선동(160개), 매탄동(148개), 세류동(117개), 영통동(115개) 순

[표 3] 수원시 치킨집 현황(2019.2)

구분	수원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장안구
매장수 (개)	1,879	573	547	403	356
평균면적 (㎡)	67.2	54.5	83.4	70.0	59.3
인구천명당 매장수 (개/천명)	1.57	1.52	3.04	1.13	1.25

자료: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18] 수원시 치킨집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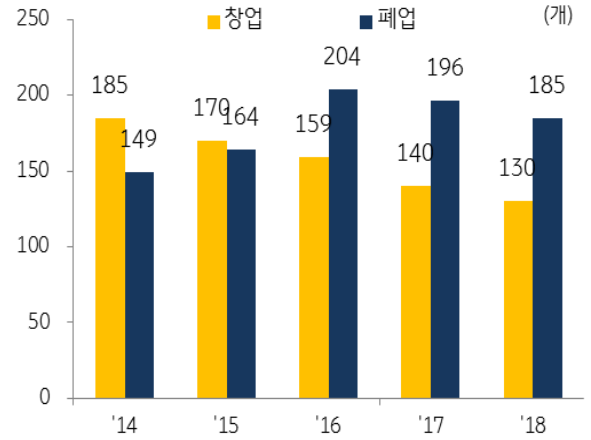


자료: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 수원 치킨집 창업 및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창업이 최근 5년간(2014~2018)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이후 3년간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상황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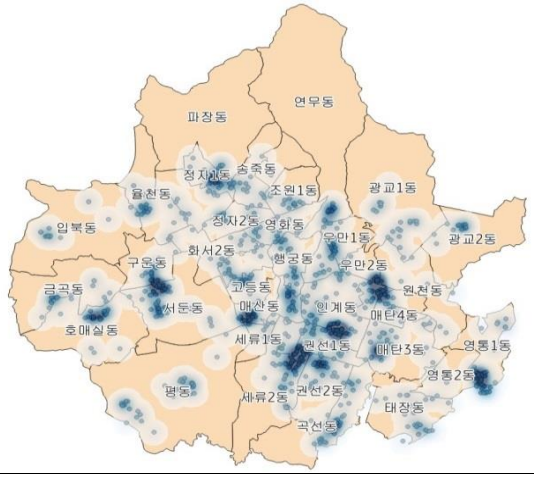
- 동별로는 인계동에서 창업과 폐업이 가장 많이 일어나 최근 5년간 62개 매장이 창업하고 78개 매장이 폐업
- 같은 기간 인계동 폐업 치킨집의 67%는 5년 넘게 영업을 지속해오던 곳으로 나타나 해당 상권에서 장기간 영업을 해오던 매장의 폐업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

[그림 19] 수원시 치킨집 창업/폐업 추이



자료: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그림 20] 수원시 폐업 치킨집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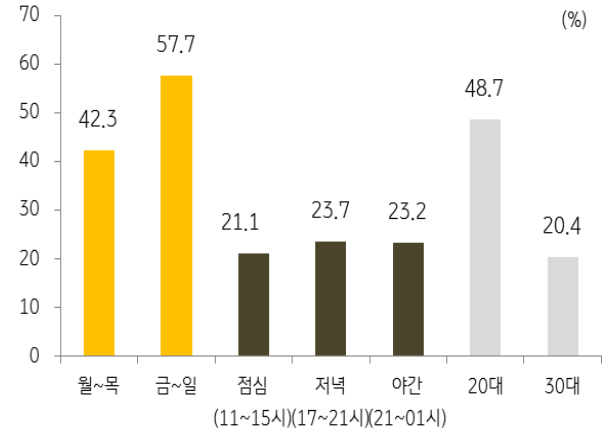


자료: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 **치킨집 밀집도가 높은 인계동 수원시청역 인근 상권[4]을 분석한 결과, 경쟁은 심화되고 평균 매출액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영업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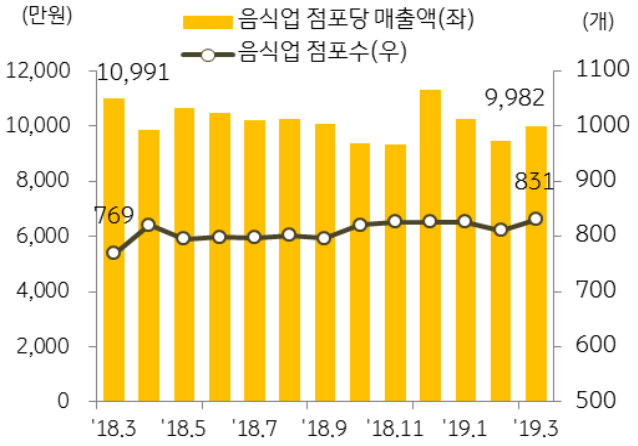
- KB부동산 리브온 상권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3월 현재 해당 상권에서는 총 1,693개의 매장이 영업 중이며 업종별로는 음식업 매장이 831개로 가장 많음
  - 해당 상권은 주말(금요일~일요일) 이용객이 57.7%를 차지하고 주요 시간대별 이용객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20대 이용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
  - 2019년 3월 현재 음식업 점포당 매출액은 평균 9,982만원으로 전년 동월 1억 991만원 대비 9.2% 감소하였으며 매장수는 769개에서 831개로 증가

[그림 21] 이용객 현황(수원 인계동)



자료: KB국민은행, 리브온(Liiv ON) 상권분석

[그림 22] 음식업 점포수 및 매출액(수원 인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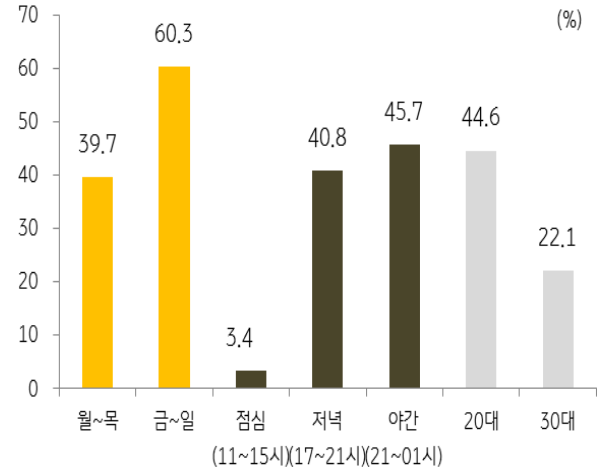
자료: KB국민은행, 리브온(Liiv ON) 상권분석

[4] KB부동산 리브온에서 제공하는 상권분석서비스를 이용하여 KB국민은행 수원시청역지점 반경 700m 범위내에 있는 상권을 분석

- 인계동 전체로는 치킨집 폐업이 많았지만 분석 상권 내 치킨집수는 전년동월 대비 5곳이 늘어나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매출액도 2018년 3월 7,145만원에서 2019년 3월 5,751만원으로 19.5%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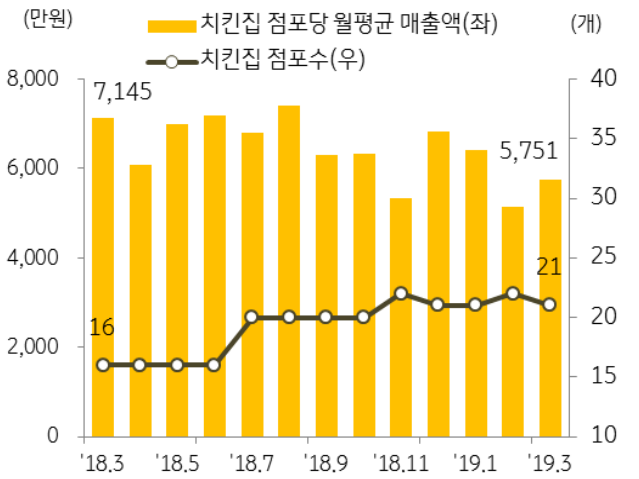
  - 해당 상권내 치킨집은 2019년 3월 현재 21개가 영업 중이며 요일별로는 주말, 시간대별로는 저녁 및 야간 시간대에 이용객이 많으며 20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

[그림 23] 치킨집 이용객 현황(수원 인계동)



자료: KB국민은행, 리브온(Liiv ON) 상권분석

[그림 24] 치킨집 점포수 및 매출액(수원 인계동)



자료: KB국민은행, 리브온(Liiv ON) 상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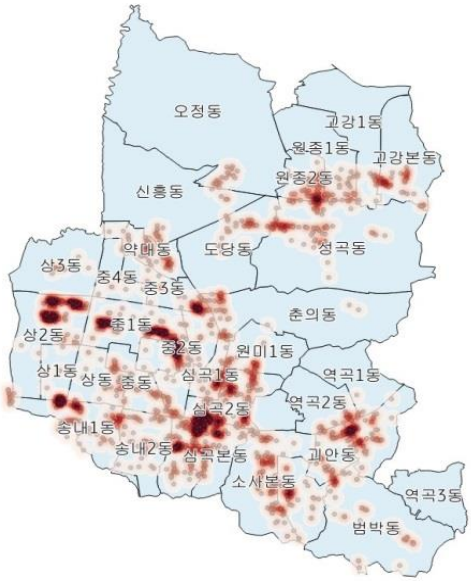
2. 치킨집 폐업이 가장 많았던 부천

■ **부천은 최근 5년간 치킨집 폐업이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 2019년 2월 현재 총 1,683개 매장이 영업 중**

- 동별로는 중동에 가장 많은 272개의 치킨집이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동(246개), 심곡동(237개) 순

- 영업 중인 치킨집의 평균 면적은 57.5㎡로 경기도 평균(61.1㎡) 보다 규모가 작았으며 인구천명당 매장수는 2.0개로 경기도 평균 1.5개를 상회

[그림 25] 부천시 치킨집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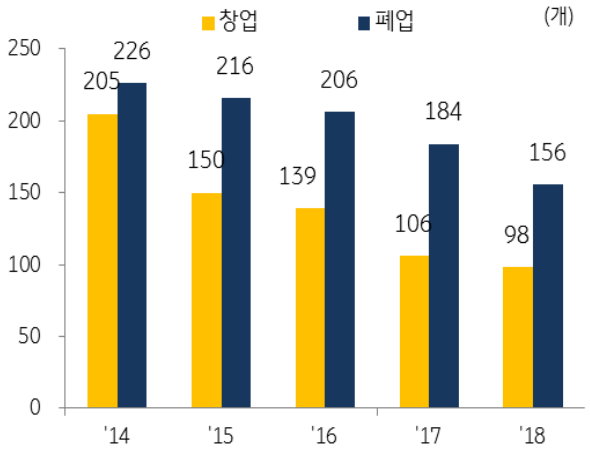


자료: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 부천시 치킨집 창업과 폐업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창업보다는 폐업이 많은 상황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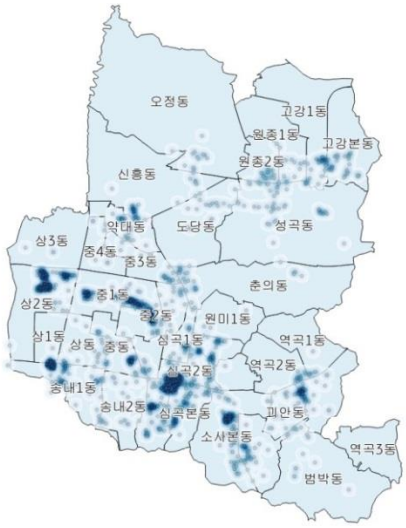
- 치킨집 창업은 2014년 205개에서 2018년 98개로 절반이상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폐업은 226개에서 156개로 감소
- 최근 5년간(2014~2018) 폐업매장의 영업기간을 살펴보면 5년 초과가 57.8%, 3년 이하가 30.3%, 3~5년이 12.2%를 차지하였으며 창업과 폐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심곡동으로 117개 치킨집이 창업하고 154개가 폐업한 것으로 분석

[그림 26] 부천시 치킨집 창업/폐업 추이



자료: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그림 27] 부천시 폐업 치킨집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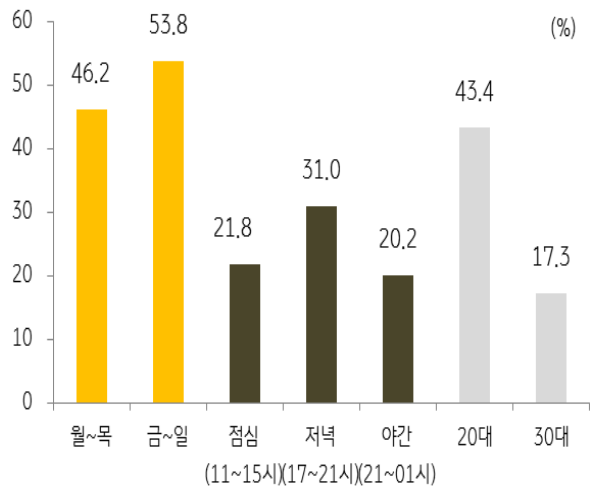
자료: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 창업과 폐업이 가장 많았던 심곡동 상권[5]을 분석한 결과, 점포수는 유지되고 있지만 매출이 감소하며 시장이 쇠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KB부동산 리브온 상권분석결과, 2019년 3월 현재 해당 상권에서는 영업 중인 매장은 총 2,492개이며 이중 음식업 매장이 1,152개로 46.2%를 차지
  - 해당 상권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주말(금요일~일요일) 이용객이 53.8%차지하고 시간대별로 저녁시간 이용객 비중이 높으며, 연령별로 20대가 4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 음식업 점포당 매출액은 2019년 3월 현재 평균 4,097만원으로 전년 동월 4,031만원 대비 1.6% 증가하였으며 매장수는 1,098개에서 1,152개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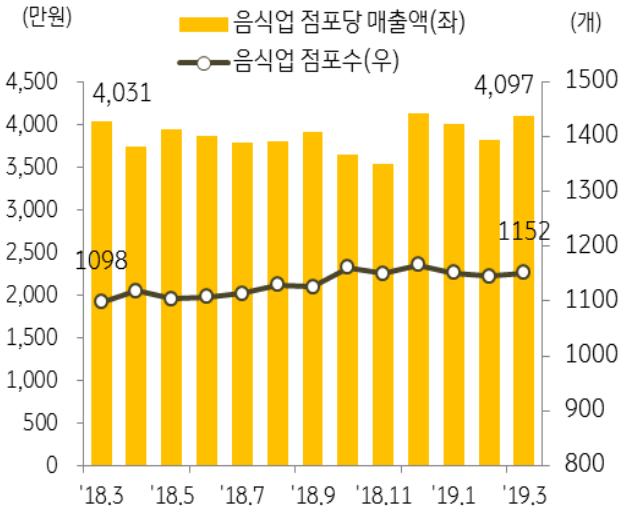
[5] KB부동산 리브온에서 제공하는 상권분석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천대학교 반경 700m 범위내에 있는 상권을 분석

[그림 28] 이용객 현황(부천 심곡동)



자료: KB국민은행, 리브온(Liiv ON) 상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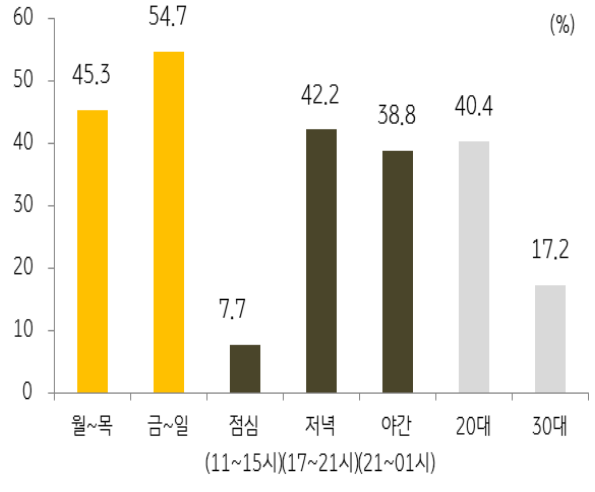
[그림 29] 음식업 점포수 및 매출액(부천 심곡동)



자료: KB국민은행, 리브온(Liiv ON) 상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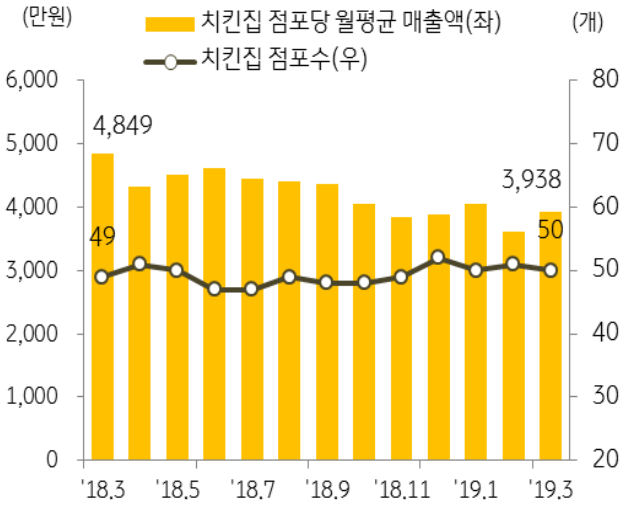
- 2019년 3월 현재 해당 상권에서 영업 중인 치킨집은 50개로 전년동월 대비 1개가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점포당 매출액은 4,849만원에서 3,938만원으로 18.8% 감소하여 전체 음식업 매출이 소폭 증가한 것과는 상반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분석
  - 한편, 치킨집 이용객은 주말 비중이 54.7%로 높고 시간대별로는 저녁 및 야간 시간대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0.4%를 차지

[그림 30] 치킨집 이용객 현황(부천 심곡동)



자료: KB국민은행, 리브온(Liiv ON) 상권분석

[그림 31] 치킨집 점포수 및 매출액(부천 심곡동)



자료: KB국민은행, 리브온(Liiv ON) 상권분석

3. 비수도권 지역 중 치킨집이 가장 많은 창원

■ 수원 다음으로 치킨집이 많은 창원에서는 2019년 2월 현재 총 1,688개 매장이 영업 중

- 창원시 행정구별 치킨집수는 마산회원구가 440개로 가장 많고, 의창구(366개), 성산구(341개), 마산합포구(319개), 진해구(222개) 순으로 치킨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동별로는 마산회권구에 속한 내서읍에서 가장 많은 138개 치킨집이 영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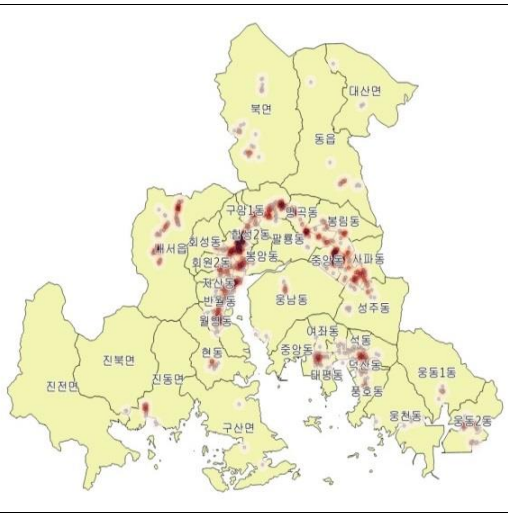
- 평균 매장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마산합포구(61.0㎡)이며 인구천명당 매장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마산회원구(2.22개)

[표 4] 창원시 치킨집 현황(2019.2)

구분	창원	마산 합포구	마산 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매장수 (개)	1,688	319	440	341	366	222
평균면적 (㎡)	58.3	61.0	50.9	67.5	58.0	55.6
인구천명당 매장수 (개/천명)	1.60	1.77	2.22	1.51	1.44	1.15

자료: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주민등록인구현황

[그림 32] 창원시 치킨집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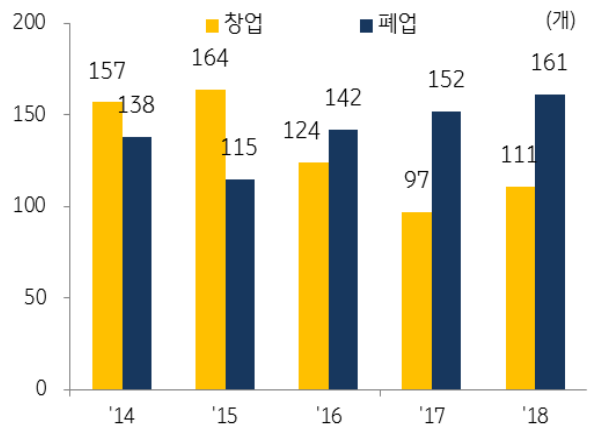
자료: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 2015년 이후 치킨집 폐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쟁 심화와 지역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일 것으로 추정

- 2015년 164개까지 늘었났던 치킨집 창업은 2018년 111개까지 감소한 반면, 폐업은 2015년 115개에서 2018년 161개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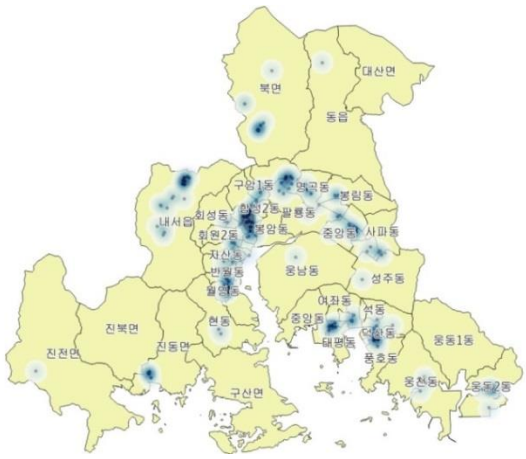
- 최근 5년간(2014~2018) 폐업매장의 영업기간을 살펴보면 5년 초과가 61.3%로 가장 많았고 3년 이하가 25.4%로 나타났으며, 동별로는 내서읍에서 창업과 폐업이 가장 많아 47개 매장이 창업하고 60개 매장이 폐업한 것으로 분석

[그림 33] 창원시 치킨집 창업/폐업 추이



자료: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그림 34] 창원시 폐업 치킨집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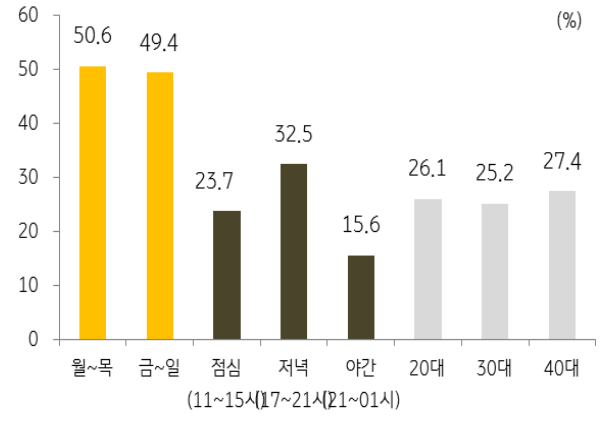


자료: 지방행정인허가 자료

■ 한편, 창원에서 치킨집이 가장 많은 내서읍 상권[6] 분석 결과, 점포수나 매출액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상권 내 경쟁이 완화된 결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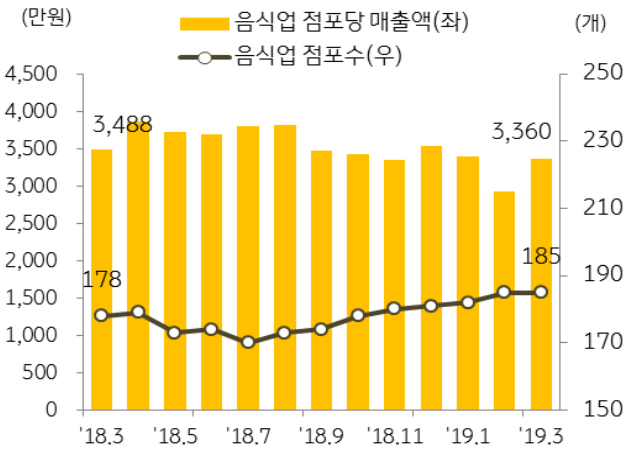
- 해당상권은 인근에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위치한 지역으로 KB부동산 리브온 상권분석결과에 따르면 주말 보다 평일(월요일~목요일) 이용객 비중이 높고 점심 및 저녁시간대 이용객이 많으며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상권으로 분석
  - 2019년 3월 현재 해당 상권에서는 총 435개의 매장이 영업 중으로 이중 음식업 매장은 185개로 나타났으며 음식업 점포당 매출액은 평균 3,360만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7% 감소

[그림 35] 이용객 현황(창원 내서읍)



자료: KB국민은행, 리브온(Liiv ON) 상권분석

[그림 36] 음식업 점포수 및 매출액(창원 내서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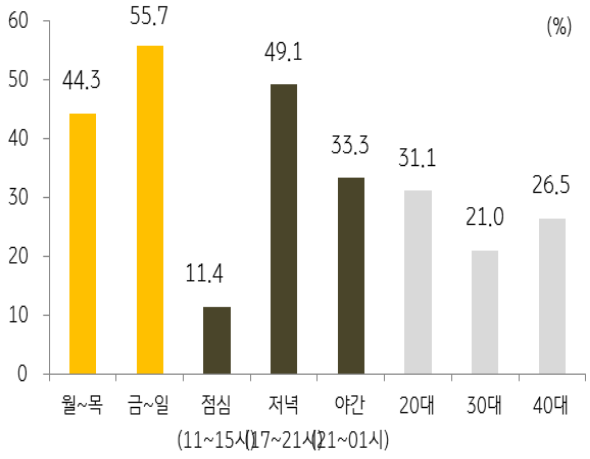


자료: KB국민은행, 리브온(Liiv ON) 상권분석

[6] KB부동산 리브온에서 제공하는 상권분석서비스를 이용하여 삼계초등학교 반경 500m 범위내에 있는 상권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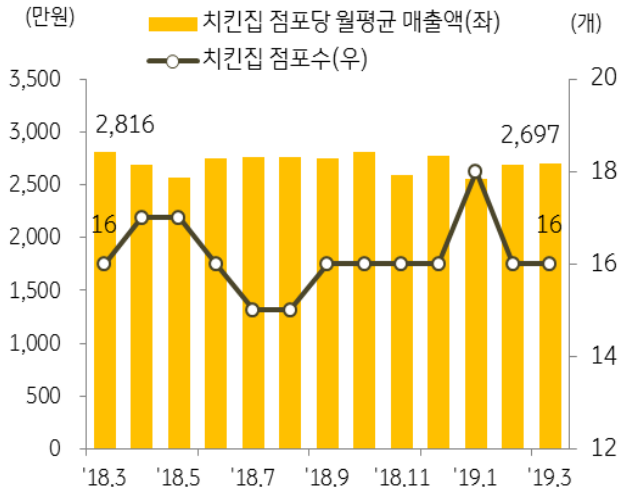
- 치킨집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요일별로 주말 이용객이 55.7%로 평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저녁시간 이용객 비중이 49.1%로 높고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한편, 매장수는 지난해와 같은 16개가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3월 현재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2,697만원으로 전년동월 2,816만원 대비 4.2% 감소하여 상권내 전체 음식업 매출 감소폭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

[그림 37] 치킨집 이용객 현황(창원 내서읍)



자료: KB국민은행, 리브온(Liiv ON) 상권분석

[그림 38] 치킨집 점포수 및 매출액(창원 내서읍)



자료: KB국민은행, 리브온(Liiv ON) 상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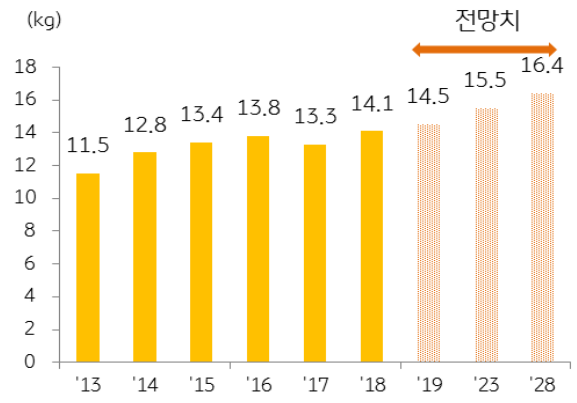
IV. 치킨집 영업 여건 진단

■ **닭고기 소비량이 늘어나고 치킨집 전체 매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치킨의 수요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

-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은 2013년 11.5kg에서 2018년 14.1kg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어 2028년에는 16.4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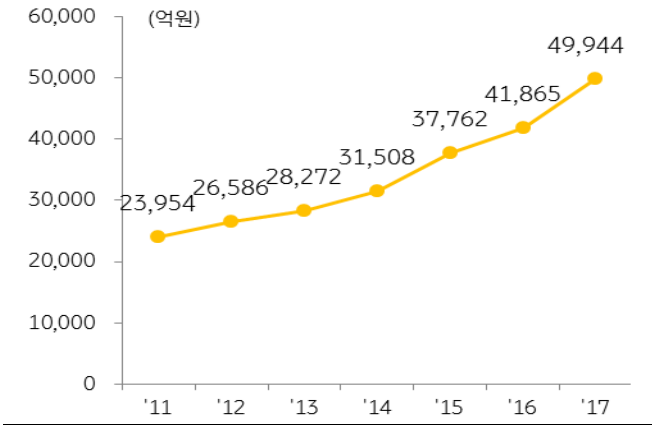
-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치킨프랜차이즈와 일반 치킨집을 모두 포함한 치킨전문점의 총 매출액은 2011년 약 2조4천억원 수준에서 2017년 약 5조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그림 39] 1인당 닭고기 소비량 추이 및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40] 치킨전문점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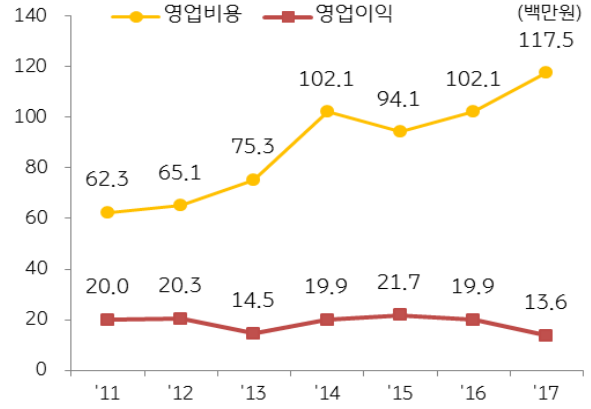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및 경제총조사

■ 그러나 자영업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운영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경쟁 심화는 치킨집 영업에 부정적 요인

- 치킨전문점 총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은 2015년을 고점으로 하락세
  -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킨전문점의 영업비용은 2011년 62백만원에서 2017년 117백만원으로 89%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백만원에서 14백만원으로 3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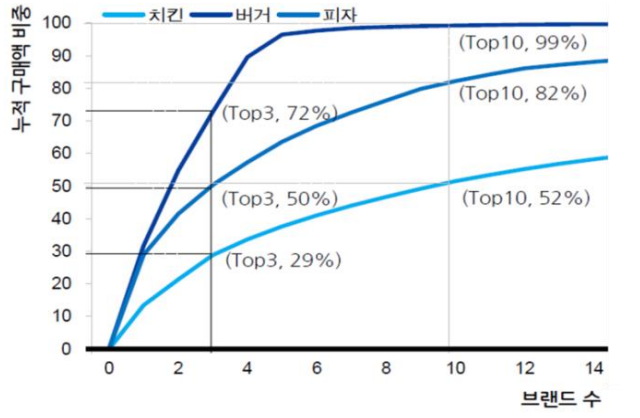
- 치킨프랜차이즈의 경우도 가맹점수가 큰 변화없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규 브랜드의 시장 진출이 활발히 일어나며 경쟁이 심화
  - 매출 상위 3개 브랜드 점유률은 버거 72%, 피자 50%로 해당 업종은 핵심 브랜드 중심의 시장이 형성된 반면, 치킨은 상위 3개 업체 매출액 비중이 29%에 불과해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

[그림 41] 치킨전문점 영업비용 및 영업이익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및 경제총조사

[그림 42] 매출 상위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유률



자료: nielsen, 2018년 국내 QSR 마켓 리뷰

■ **수요여건을 감안할 때 전체 치킨 시장 규모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영업이익 하락, 경쟁 심화 등 악화된 영업 여건은 당분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최근 창업은 감소세 보이는 반면, 폐업은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치킨집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영업여건이 악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

- 신규 치킨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시장 진입이 늘어나면서 차별화된 메뉴와 서비스, 가격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자의 선호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안정적인 영업 여건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

연구위원 김태환 (taehwankim@kbfg.com, 2073-5786)